

# 좌절된 동성 연대와 모성의 소거

: 탈식민 이후 한국 남성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극복 (불)가능성(1960~1970년대)

박지영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목차

- 1 프로이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번역의 문제성
- 2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번역 토대—부권의 위기와 여성 혐오
- 3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서사화 양상
  - 남성 성장 서사의 좌절과 ‘자기 위안’으로써의 가족 로망스
  - 3.1 어머니 살해와 동성 연대의 좌절—정하연의 「환상살인」의 경우
  - 3.2 부권 세계의 파멸과 소거된 여성들
    - 정현웅의 「외디푸스의 초상」의 경우
- 4 오이디푸스 서사를 넘어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6978)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의 문학 장에서 창작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번역의 주요 양상이 보여주는 젠더 정치학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여기에는 당대 가부장적 부권의 쇠락과 모권의 부상에 따른 공포가 만들어낸 ‘여성 혐오’라는 인식이 그 토대를 이룬다. 특히 이 시기 자기 욕망에 정직한, 정치적·경제적 활동 주체인 여성의 등장은 가부장제 사회를 뒤흔드는 위력적인 현상이었다. 이러한 점은 오이디푸스 서사 구조를 택하고 있는 당대 텍스트에서 잘 드러난다. 전형적인 오이디푸스 서사를 차용하고 있는 정하연의 「환상살인」과 정현웅의 「오이디푸스의 초상」을 살펴보면, 당대 남성 중심의 가족로망스 서사에서는 아들인 주체가 당대 폭력적인 역사의 파행 속에 훼손된 부권의 세계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이를 거부하기 위해,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살해하거나 소거시켜 간다. 여기서 어머니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고 정치적·경제적으로 능력있는 존재들이었다. 물론 이 두 텍스트의 주인공인 아들은 적어도 여타의 오이디푸스 서사처럼, 아버지와 동성 연대의 세계로 나아가지는 않고 오롯이 단독자들로만 남는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미래는 유폐되거나 막막하다. 이는 이들의 서사가 남성성의 훼손을 보상받기 위한 폭력적인 자기 위안의 서사이기 때문이며, 탈식민 이후 역사적 파고 속에서 훼손된 남성성은, 이러한 어머니(여성)를 소거시키는 것을 통해서도 제대로 된 아버지(초자아)의 세계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 준다. 더불어 이는 보편 서사로써 프로이트의 남근 중심 동성 연대 가족로망스의 허구성(번역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 이러한 남성 서사를 비판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여성의 서사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오정희와 박완서의 소설은 이 가족 로망스를 넘어서, 새로운 모녀의 연대가 가능한 세계가 존재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국문핵심어: 프로이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1960년대, 1970년대, 〈환상살인〉, 〈오이디푸스의 초상〉, 젠더정치학, 가족로망스, 초자아, 부권 사회, 여성(모성) 혐오

## 1 프로이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번역의 문제성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의 문학 장에서 창작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번역의 주요 양상이 보여주는 젠더 정치학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1963년 한 신문에서는 경주에서 20세의 아들 하나만을 의지하고 살아오던 어머니(38)가 아들이 먹을 밥 속에 농약을 넣어 그를 살해한 이른바 「친족살해」 사건<sup>1</sup>을 다루고 있다. 아들이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자, 도둑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모친이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또 1979년 9월 한 신문 기사에서는 신경정신과 월례 집담회에서 남성 성기 절단 등 자해증의 예 세 건이 무더기로 보고 되어 화제<sup>2</sup>라는 기사를 전한다. 그런데 이 엽기적인 사건을 전하는 기사의 공통점은 이 사건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프로이트’, 특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호명된다는 것이다.

정신의학자인 최신해 박사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콤플렉스’ 이론에 의거하여 첫 번째 사건을 ‘친족 살해’란 통칭으로 설명하면서, 남자는 4,5세만 되면 아버지를 제거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려고 한다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두 번째 사건에서 신경정신과팀도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성기자해 예는 어머니에 대한 지나친 사랑을 기반으로 여성성을 지향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물론 사회 의식이나 도의의 붕괴를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 두 사건을 다루는 당대 내러티브에서 등장하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단순히 윤리적 차원을 넘어선, 극단적인 ‘비정상성’의 사례를 분석할 전범적 사고방식이었다. 이처럼 한국에서 프로이트 사상은 흔히 운위되는 대로, 인간 내면(무의식)과 욕망의 발견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이처럼 비윤리적인, 엽기적인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담론에서 번역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당대 일반적인 담론 내부에서는 프로이트주의가 독선적이고 화석화된 단순 논리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1953년 ‘문화인등록법’에 관한 비판적인 기

1 「일그러진天倫(천륜)」, 『경향신문』, 1963.08.08. 5쪽.

2 「신경정신과 月例會(월례회)에 3개 사례 報告(보고)」, 『경향신문』, 1979.09.05, 4쪽.

사에서 필자는 이 법안이 문화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하면서, 권력이 마치 문화인들을 “재단”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프로이트의 심리학” 같은, 이야기,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방성”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sup>3</sup>

이는 프로이트 사상이 우리에게 불온한 것으로 타자화되어 번역되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누군가에게는 역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징후이기도 하다. 현재는 교육학 교재나 문학비평 분야 등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프로이트주의의 핵심 기호임에도 불구하고 60년대 이전에는, 학술적인 장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sup>4</sup> 그 이유는 당대 사회가 이를 근친상간을 상상하게 하는 ‘터부’로 규정하여 하나의 불온한 기호처럼 치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당대에 프로이트주의가 이처럼 부정적인 의미에서 번역된 것만은 아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이 ‘인간의 내면적 고통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으로 번역된 것은 문학과 철학의 영역에서이다. 1964년 프로이트의 문학 이론을 소개한

---

3 「文化人登錄(문화인등록) (下(하))」, 『경향신문』, 1953.07.01. 2쪽. 당대 사회가 프로이트주의에 부정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이 사상이 번역되기 시작한 시기가 미국에서 프로이트 사상에 대한 비판이 강렬하게 대두되었던 1950년대부터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로이트 수용사에 의하면, “해방 후부터 미국 정신의학 심리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던 정신의학계나 심리학계가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게 된 것은 필연적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옛날 이론’화된 프로이트의 이론은 1970~1980년대 한국에서 교양의 수준 혹은 되짚어 볼 만한 과거의 유산 정도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라고 한다. 이정민, 「한국의 프로이트 이론 수용 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6, 123쪽. 정신의학사를 살펴보면, 1950년대부터, 정신질환이 무의식적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낡은 진리는 내던져지고, 대신 뇌 자체의 연구에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게 된다. 이를 저자인 쇼터는 정신의학계에는 혁명이라고 칭한 바 있다. (에드워드 쇼터, 최보문 역, 『정신의학의 역사』, 바다출판사, 2014, 4쪽)

4 당대 프로이트에 관한 목차를 살펴볼 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제목이나 목차에서 노출된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대표적으로 심리학자 이진숙의 저서 『프로이트』(사상계사, 1960)에서 목차를 살펴보면, 무의식, 꿈, 성욕, 자아란 키워드가 목록화되어 있으며, 1958년에 시행된 프로이트 탄생 10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수행된 논문 발표에서도 히스테리, 성욕(Libido) 꿈, Witz(농담), 등의 용어가 등장하고 있지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유석진 편, 『精神分析學: 후로이드誕生 101周年記念 論文集』,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58 목차 참조)

독문학자 곽복록은 프로이트가 “관념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는 무의식 세계를 파헤치고 들어가 여러 가지 인간 내부의 본능적인 면 특히 성과 인간구조와의 관계를 해명함으로 엄청난 인격이론을 정립하였”고, “그것은 또 종교와 권위와 사상과 철학에 묶여진 하나의 역사적인 인간을 그 골동품화 되어가는 지경에서 구출”하였다고 설명한다. 평론가 김현이 프로이트 이론에 입각한 정신분석을 텍스트 해석의 주된 방법론으로 채택해 왔고, 이에 따라 그의 평론에 억압, 쾌락, 원칙, 승화 등의 프로이트적 개념이 빈번하게 등장한<sup>5</sup> 것도 프로이트주의를 생산적으로 번역한 대표적 예이다.<sup>6</sup> 그러나 이렇게 이론적인 의미에서 그 담론이 긍정적인 의미로 평가된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문학예술 텍스트에 실제 번역되는 국면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프로이트 담론이 주로 인간의 내면적 고통을 다루는 정신의(분석)학 분야에서 먼저 번역되는 점과도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sup>7</sup> 푸코에 의하면, 근대 이후 이 정신의학 담론은 ‘가정’이라는 규율체계와 연관되어 있다. 근대 이후 ‘가정’은 ‘왕의 신체’가 맡고 있었던 주권권력의 역할을 대신하는 규율체계로 새롭게 배치된다. 학교, 작업장, 군대나 심지어 감옥 등에서 이루어지는 규율체계의 고착은 오직 가정의 주권 자체가 온전히 작동할 때에만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

- 
- 5 한래희, 「김현 비평과 정신분석 방법론」, 『현대문학의 연구』 제66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357쪽.
  - 6 해방 이후 프로이트주의는 이와 같이 문화예술이나 정신분석학 분야에서 양분되어 번역된다고 한다. 이정민, 앞의 책, 78쪽.
  - 7 본격적인 프로이트 텍스트 번역은, 비록 일본 신조사판을 원본으로 하였지만, 1956년 정신과 의사였던 백상창이 번역한 『성욕론』에서 시작된다. 또 이후 이용호에 의해서 『정신분석 입문』(1958-9), 『꿈의 해석』(1961), 『예술론』(1968)이 일부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용호(정신분석전공으로 소개되지만)를 제외하면 백상창, 유석진, 이부영 등 거의 대부분 번역가가 정신의학자(의사)이거나 김태오, 이진숙 등 심리학자들이다. 또한 최초의 번역 텍스트 제목이 『성욕론』인 것은 프로이트가 마르크스주의로는 포괄되지 않는, 섹슈얼리티 담론을 표현하는 기호였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해방 이후 1979년까지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프로이트 사상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외에 ‘성욕’ ‘무의식’ ‘히스테리’, ‘신경증(노이로제)’, ‘꿈(의 해석)’, ‘자살’, ‘죽음 충동’ 등 여러 부정적인 의미의 키워드로 다뤄지고 있다.

이다.<sup>8</sup>

우리의 경우도 프로이트주의 번역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이 기호들이 가족 제도와 섹슈얼리티 담론 등 ‘일상’의 영역에서 변주되고, 또 그만큼 억압적 도구로서도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앞서 인용한 문구대로, 비정상성의 전범으로 정상적인 가족 제도를 위협하는 주체를 형상화할 때 등장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핵심 용어로, 프로이트는 이를 모든 신경증의 ‘주요’ 혹은 ‘핵심 콤플렉스’로 불렀다. 1920년판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에 추가된 주석에서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정신분석학 체계 전체가 기초하고 있는 움직임일 수 없는 초석임을 분명히 했다.<sup>9</sup>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에서부터 ‘꼬마 한스’ 등을 치료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게 대한 콤플렉스를 「햄릿」과 같은 고전 텍스트의 분석에 대입하여 인간 내부의 심층에 도사리고 있는 오이디푸스 서사가 갖는 보편성을 추출해 낸다.<sup>10</sup>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왕」의 서사를 바탕으로 창안된 이 콤플렉스는 인간 보편적인 발달 단계에 대입되어 대략 만 세 살에서 만 여섯 살 사이의 아이들이 한쪽 부모에게 강렬한 사랑을 느껴 그 부모를 독점적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한편, 다른 쪽 부모에게는 강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는 성향을 말

---

8 푸코는 가정이라는 규율체계의 안정화를 위해 정신의학, 정신병리학, 정신사회학, 정신범죄학, 정신분석학 등의 기능이 출현한다고 밝힌다. 심리학도 정신의학의 기능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학교 규율 내부에서는 교육심리학이 직장 규율 내부에서는 노동심리학이, 감옥 규율 내부에서는 범죄학이, 정신의학과 정신요양원의 규율 내부에서는 정신병리학이 출현하게 된다 한다. 미셸 푸코, 심세광·전혜리 역, 『정신의학의 권력: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3~74년』, 난장출판, 2014, 127-136쪽.

9 로버트 M. 영, 이정은 역,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제이북스, 2002, 21-22쪽.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신경증의 핵심 콤플렉스이고 신경증 증상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이야기되어 왔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유아 성욕의 정점을 나타내며, 그 잔존 효과들을 통해 성인의 성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구상의 모든 아이들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과제에 실패한 사람은 신경증의 희생양이 된다.”고 말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정일 역,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1997, 353쪽 각주 133번 참조)

1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이트, 김인순 역, 『꿈의 해석(상)』, 열린책들, 340-361쪽 참조.

한다.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해소되면, 인간은 도덕성, 달리 말하면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며 비로소 아이들은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사회 문화적 관습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런데 그 관습의 핵심은 터부를 어기지 않는 것이다. 이 중에서 ‘근친상간’은 반드시 피해야 할, 강력한 금기였다.<sup>11</sup>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근친상간’에 대한 터부가 형성되는 과정을 「토텐과 타부」에서 다시 한번 인류학적 차원에서 정립한다.<sup>12</sup> 프로이트는, 탐욕스럽고 다양한 모습을 지닌 ‘원시 시대의 아버지’인 유목민의 족장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배신 당하고 살해당하며,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 형제들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어머니, 즉 아버지의 여성들을 소유할 수 없는 터부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벗어나고 자신들의 (동성 사회의) 형제애를 지켜내게 된다는 것이다.<sup>13</sup>

이러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소위 ‘가족로망스’ 서사는 이후 많은 문화 텍스트에서 변용되며, 역사, 사회, 문화적 현상에서 다양하게 변주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인간 심리의 본질에 대한 획일적 모형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동해 가는 인간사회에 대한 하나의 보편 서사로 확장, 변용된다. 린 헌트가 이 ‘가족 로망스’란 해석의 틀로 프랑스 혁명 이후의 사회의 변동을, 또 다른 위계화, 젠더 불평등의 길로 권력이 재편되는 과정으로 분석해 낸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sup>14</sup> 이렇게 오이디푸스 서사는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 체계에 존재하는 인간의 욕망과 섹슈얼리티의 구조에 관한 하나의 해석학적 관점을 제공하기도 한다.<sup>15</sup>

이러한 점은 한국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번역될 것인지, 그 방향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케이트 밀렛은 서구에서 1930~60년대, 잇따른 전쟁으로 인해 형성된 소위 ‘반혁명의 시대’의 지적 기원과 분위기의 주

---

11 로버트 M. 영, 앞의 책, 7-8쪽.

12 프로이트, 이윤기 역, 「토텐과 타부」,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1980, 401-430쪽 참조.

13 위의 책, 401-430쪽 참조.

14 린 헌트, 조한욱 역,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새물결, 1999.

15 정승화, 「근대 남성 주체와 동성사회적(homosocial) 욕망: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서사와 멜랑콜리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2, 8쪽.



범이 바로 프로이트주의이며, 이 담론이 당대 성 정치학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강력한 반혁명적 힘이었다고 주장<sup>16</sup>한다. 물론 이러한 점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의 보수적인 가부장제적 사고방식에서는 이 기호들이 그 못지않게 억압적으로 번역될 가능성도 크다.

이 터부의 상상력은 분명 1960~70년대, 우리의 일상에서도 변주되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 우리의 문화예술텍스트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 인식이, 탈식민 이후 격동의 역사 속에서 광범위하게 재편되어가는 사회, 특히 가족 제도 안에서, 당대 주체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가야 하는가를 모색하는 하나의 참조틀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기호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한, 1960~70년대 대중 매체 및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당대 이 기호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방식으로 서사화되어 번역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앞서 말한 대로, 탈식민 이후 역사적 변동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독재 하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당대 사회가 또 어떠한 위계화된 인식으로 주체들을 구성해 내는 지를 살피는 데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2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번역 토대—부권의 위기와 여성 혐오

우리 사회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대중적으로 신문 기사에서 등장하는 시기는 60년대<sup>17</sup>중후반부터이며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한다. 그간 터부시되면서 제대로 인용되지 못했던 이 용어가 활용된 계기 중 하나는, 이 시기에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1974년, 황문수 역)이 번역되고 상연된 것이다.<sup>18</sup> 그 결과 이 텍스트는 그리스 4대 비극이라는 후광과 그 예술적 형상화의 힘으로 ‘오이디푸스’라는 기호 자체가 터부시되지 않게 하는 데 일조한다.

---

16 케이트 밀렛, 김전유경 역, 『성 정치학』, 이후, 2009, 353-355쪽 참조.

17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18 『오이디푸스王』이 劇團(극단)「作業(작업)」서 1975년 9월 11-16일 조우현의 번역, 길명일 연출로公演된다., 「오이디푸스王公演」, 『조선일보』, 1975.09.10. 6쪽.



이 기세를 몰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서사를 차용한 다양한 창작 연극도 상연된다.<sup>19</sup> 연극사(史)에서 1970년대는, 1960년대부터 변화의 징후가 나타난 삶의 부조리성과 모호성, 개방적인 공간, 인과성의 해체, 시공의 초논리성, 서사적 요소의 개입 등을 특징으로 한 비사실주의적 성향의 작품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창작극의 수준이 높아지고, 관객들의 확산 등 외국의 다양한 연극 이론 및 작품들이 소개되면서 한국 연극이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한다.<sup>20</sup>

이 토대에서 “외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것을 비롯해서 갖가지가 뒤섞여 있”다고 소개된 「초분」<sup>21</sup>, “재판극의形式(형식)을 빌어 어머니와 아들의 갈등이 영원히 되풀이되는 외디푸스·콤플렉스를 파헤쳐 본 情念的(정념적)인 드라마”라는 정하연의 「환상살인」<sup>22</sup>, “엘렉트라콤플렉스와 외디푸스 콤플렉스를 뼈대로 젊은이들의 세계를 분석해 보았다”는 극단 신희의 「신바람」<sup>23</sup>이 창작되고 상연된다. 또한 1978년에는 제목에서부터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서사를 표방한 정현웅의 소설 「외디푸스의 초상」이 발간되기도 한다. 여기에 당대 정신분석 담론이 대중화 되면서, ‘콤플렉스’라는 기호의 활용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이 기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sup>24</sup>

1960~70년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키워드로 검색된 텍스트는 주로 가족담론을 다룬다. 전형적인 정신분석학 담론 내부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당대 우리의 경우, 그것을 전

19 1969년에는 드라마 작가로 더 알려진 정하연의 「환상살인」이 경향신문 희곡공모전에 당선되고, 이후 임영웅 연출로 국립극단에서 상연된다.

20 홍창수, 「1970년대 번역희곡과 번역극의 수용 양상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20호, 한국극예술학회, 2004, 63-64쪽.

21 「集團演出(집단연출)시도, 「草墳(초분)」공연」, 『동아일보』, 1973.03.14., 5쪽.

22 「情念的(정념적)인 드러머」, 『경향신문』, 1969.03.05., 5쪽.

23 「藝術劇場(예술극장) 극단新協(신희) 「神(신)바람」공연」, 『동아일보』, 1974.9.18. 5쪽.

24 당대 이청준 소설에서 등장하는 정신의학적 징후가 정신분석학의 도입과 관련이 깊다고 본 연구도 있다. 대표적으로 최예순, 「1960년대 정신분석의 도입과 근대적 공포 코드의 전환—이청준 소설의 ‘정신병자’와 정신분석 치료의 충동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통담론과 연관지어 해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다. 한양대 의대 김광일, 차준구(신경정신과)팀은 「한국전설에 나타난 효의 문화정신의학적 연구」에서 “효행은 외디푸스 콤플렉스가 승화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한다.”<sup>25</sup>

이러한 인식은 또 다른 정신의학 기사에 의해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 기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체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의식 속에서 존재 의미를 찾”기 때문에, “외디푸스 복합이 그리 큰 문제로 등장하지 않는다”<sup>26</sup>고 한다. 또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고부갈등의 원인으로 단순하게 치환해 버리는 시각도 존재한다.<sup>27</sup> 이러한 논리는 동양의 윤리를 중시하는 당대 보수적 세계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키워드와 함께 등장하는 당대 ‘모성’ 담론 역시 이 자장 안에서 출발한다.

25 이 글에서는 이 “외디푸스複合(복합)”의 존재 근거로 “전설에 나타난 효행의 수단을 보면 동성효행은 거세 상징이 많은 반면 이성효행에서는 성적 상징이 많았다는 점을 들었다. 동성효행에서의 “거세의 상징”은 근친상간의 죄의식에 의해 자가 처벌의 한 양태로 나타난 것이고, 이성의 부모에 대한 효행에서의 성적 상징은 “근친상간적인 갈등이 그 일차적 동기”라는 것이다. 이 연구에는 ‘근친상간’의 욕망, 동성의 부모에 대한 적개심이라던가, ‘동성애’의 상징 등 터부의 언어들이 등장하면서 프로이트의 가족 로망스 서사가 우리의 경우에도 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孝(효)를 통해 精神的(정신적)갈등 해소』, 『경향신문』, 1979.05.08. 4쪽) 여기에서는 프로이트의 꿈 분석 방법에 준해서 효 주체자가 생명 신체적 손상, 고통을 감수하는 내용을 거세상징이라고 보았고, 잉어, 지렁이, 바위, 동삼, 물고기, 죽순 및 동굴, 종, 그릇, 물, 샘 등 정신분석학적으로 남성 혹은 여성의 성기, 또는 생식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근친상간의 의욕이나 살부 의욕이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강하게 억압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적나라하게 의식화되지 못하고 심한 상징화와 전이를 거쳐서 문화적으로 바람직한 행동 내용으로 변형되어 의식계와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차준구, 「한국 전설에 나타난 효의 문화정신의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8-1(별책), 1979, 85-87쪽)

26 「說話(설화)속의 韓國人(한국인) 精神醫學者(정신의학자)가 分析(분석)한 <完(완)> 權力(권력)갈등」, 『경향신문』, 1975.02.27., 5쪽.

27 YMCA가 여성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련한 정신건강상담실에는 고부간의 갈등을 호소해 오는 주부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련한 공개 강좌에서 최종진 박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시어머니나 며느리 가운데 3명 중 1명이 고부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병을 앓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된 원인으로 ‘사고방식과 가치관 차이’를 들기도 했지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YWCA, 「姉妹(고부)간 갈등 해소 될까」公開(공개)강좌」, 『경향신문』, 1979.06.14. 4쪽.

現代文明(현대문명)은 바로 외디푸스 콤플렉스가 아니라 비닐 콤플렉스에 걸린 2世(세)들에 의하여 전개되어가고 있다…「학사어머니」들은 물질 이외로 자녀를 사랑해 주는 모성의 본능적 방법을 잊어버린 카나리아들이다……파티나 동창회 모임으로 집을 자주 비우는 파티형 어머니, 여권운동에 바쁜 세미나형 어머니, 라디오나 TV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스크형 어머니, 직장에 나가 돈벌이를 하는 아버지형 어머니, 이 말은 현대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충분히, 그러니까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처럼 그렇게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콤플렉스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그 보상으로서 오늘의 어머니들은 「눈물」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돈」을, 사치스러운 옷과 장난감을 안겨준다.

(…) 피아노 개인교수를 불러들이고, 미술연구소와 그리고 일류고에 아이들을 집어 넣으려고 극성을 띤다. 이것이 바로 그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엄마의 애정 표현은 곧 물질적 표현과 등가물이 되고 만다.<sup>28</sup>

이어령이 쓴 이 글은 당대 모성 담론의 보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필자는 당대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란 용어가 적용 불가능한, 모성 상실의 시대라고 판단하고 그 원인을 “학사 어머니”들의 여권 운동, 혹은 물질적인 사치, 당대 입시제도와 연관된 치맛바람 그리고 마스크, 여성의 직장 생활 등으로 돌린다. 여기에는 당대 지식인 여성의 증가와 더불어,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점차 싹을 키워가는 여성주의 운동의 성장을 바라보는 남성 주체의 불편함이 투사되어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금기’가 아니라 (아들에 대한) ‘모성’으로 단순하게 치환시키는데, 그러면서 이 논리는 현재 운위되는 ‘맘충’과 같은 여성혐오 서사로 귀결된다.<sup>29</sup>

28 「저 물레에서 運命(운명)의 실이 (48)—李御寧(이어령) 제3의 에세이 이것이女性(여성)이다」, 『경향신문』 1972.05.23. 5쪽.

29 물론 당대 이 오이디푸스 서사를 ‘금기’로 다룬 기사도 존재하지만, 여기서 이 ‘금기’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보수적인 상황 판단이 깔려 있다. “이 헬라 最古(최고)의 남녀에 관한 신화는 물론 저 외디푸스 비극이다. 거기에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男

이를 볼 때에도 이 모성 상실에 대한 보수적 태도는 당대 부권의 약화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 이 지점에서 Post-프로이트주의자인 마르쿠제를 호명되기도 한다. 이 텍스트에서의 초점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아버지 살해의 욕망’이다. 이 기사에서는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을 인류학자들은 父權(부권)에 대한 母權(모권)의 反革命(반혁명)으로 파악”<sup>30</sup>한다고 하면서, “현대”는 이 “외디푸스時代(시대)”로, “마르쿠제는 아버지의 죽음을 거창스레 「宣言(선언)」까지 하고 있다.”<sup>31</sup>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는 68학생운동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로 기존 억압적 담론에 대한 반역을 부권의 죽음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마르쿠제의 의도를,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으로 심각하게 오역한 결과이다.

이외에도 이 시기에 교권에 대한 위협 등을 “외디푸스처럼 아버지를 죽이고 미케나이의 공주 엘렉트라처럼 어머니를 죽이”는 친족 살해로 비유<sup>32</sup>한 점 역시, 윤리적 차원을 넘어 오이디푸스의 부권 계승의 서사가 점차 실현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남성 주체들의 불안감이 표현된 것이다.

한국문학 연구에서 지금까지 오이디푸스 서사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sup>33</sup> 특히 1960~1980년대 남성 작가들의 텍스트에 드러나는 가족로망스 서사에 대한 연구<sup>34</sup>는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제국의 멸망’이라는 차원에서

(남) 母(모)의 관계라고 하는 무서운 현실이 지적되고있다. 다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 (민경재(연세대, 신학), 「여성(여성)과 母性(모성)」, 『경향신문』, 1975.7.15. 5쪽.)

30 「萬物相(만물상)」, 『조선일보』, 1977.03.13. 1쪽.

31 「萬物相(만물상)」, 『조선일보』, 1978.02.02. 1쪽.

32 이 기사는 남산공전의 스승 집단 린치 사건을 다루고 있다. 「만물상」, 『조선일보』, 1979.03.09.

33 대표적으로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반오이디푸스 문화론』, 문예, 2007.; 권명아, 『탕아들의 자서전 가족 로망스의 안과 밖』, 태학사, 2008.; 김소연, 「1960년대 만주활극 영화에서 가족 로망스와 (탈)경계 욕망의 문제설정」, 『라깅과 현대정신분석』 제18권 2호, 한국라깅과현대정신분석학회, 2016.; 김미영,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가족 로망스의 의미」, 『語文學』 제97호, 한국어문학회, 2007.; 임금복, 「한국적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초상」, 『비평문학』 제7호, 한국비평학회, 1993.

34 ‘오이디푸스’ 서사로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는 많다. 이 시기와 연관된 논의를 중심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임금복, 앞의 글; 최애순, 앞의 글; 오자은, 「무엇이 중산층 여성의 섹슈얼리

주체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한 식민지 시대를 넘어, 탈식민 이후 분단 국가 수립 과정에서 구성된 남성 주체의 성장 과정을 형상화 한 오이디푸스 서사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sup>35</sup> 이 논의들은 대체로, 탈식민화 과정에서 새로운 아버지상의 비정상성이 이후 남성 주체들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단계를 정상적으로 통과하는데 장애로 작용하여, 주체가 아버지의 권위적 억압을 부정하지 못하고 그 체제로 흡수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해 낸다.<sup>36</sup> 그런데 이들 연구가 간과한 것은 이 서사에서는 그 삼각관계의 또 다른 주인공인 어머니의 형상이 소략하게 제시되어 있거나, 모성에 얽매어있는 전형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sup>37</sup>

그런데 이와 달리 앞서 제시한 작품, 정하연의 「환상살인(1969)」과 정현웅의 「오이디푸스의 초상」(1976)<sup>38</sup>, 이 두 오이디푸스 서사에서는 어머니가 좀 더 입체적인 캐릭터로 등장하고 남성 주체들의 통과제의 방식 역시 이와는 다른 방

티를 구성하는가?: 70~80년대 중산층 여성 소설들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제95호, 문화과학사, 2018.; 공중구, 「삼부녀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가족주의」, 『현대소설연구』 제5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등이 있다.

35 대표적으로 오자은, 「‘살’과 ‘이념’: 중산층 남성 성장서사의 무의식: 김원일의 『노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59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9; 허관무·고재석, 「탈식민, 전쟁, 오이디푸스 대한민국—최인호 초기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72호, 2019.

36 이러한 분석들은 한국의 남성 주체성이 극복해야 할 대상이 갖는 억압, 비정상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후 아들이 오이디푸스 단계를 극복하고 제대로 초차아를 획득하는 데 근본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연구들은 한국적 특수성 내부에서 남성 주체의 서사가 갖는 하나의 징후를 그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증명해 내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허관무·고재석, 위의 글 참조)

37 이 때문에 이 서사들은 모두 아들의 서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식민지와 전쟁 등으로 발생한 “아버지가 부재인 가족사 속에 아들들의 향방의 지표를 상실한 심리”를 “아버지 콤플렉스”로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잘 보여준다. 임금복, 앞의 글, 이 연구는 김승욱의 「생명연습」(1962), 이청준의 「바닷가 사람들」(1966), 김주영의 「아들의 겨울」(1977), 오정희의 「유년의 뜰」(1980)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38 앞서 설명한 대로, 「환상살인」은 당대 유행했던 오이디푸스 서사의 대표적인 희곡 텍스트, 정현웅의 「오이디푸스의 초상」은 당대 작가들이 갖고 있었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관심을 대대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소설 텍스트이다. 그런 점에서 이 두 텍스트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향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 3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서사화 양상

—남성 성장 서사의 좌절과 ‘자기 위안’으로써의 가족 로망스

#### 3.1 어머니 살해와 동성 연대의 좌절 —정하연의 「환상살인」<sup>39</sup>의 경우

경향신문사와 국립극장이 공모한 69년도 장막극 희곡 당선작인 정하연의 「환상살인」은 “외디푸스 콤플렉스를 파헤쳐본 정념적인 드라마”<sup>40</sup>로, 어머니 하인혜의 죽음을 둘러싸고 아들과 정부 중 누가 범인인가를 추적하는 재판 형식의 극이다. 이 극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 민주가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총으로 겨누는 것에서 시작<sup>41</sup>하며, 그 현장에 함께 있던 어머니의 정부(情夫) 중혁의 존재는 어머니의 치정 관계가 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점을 암시한다.<sup>42</sup>

그간 다른 서사에서 보여주었던 아버지 없이 고생하는 전형적인 홀어머니상<sup>43</sup>과 달리, 여기서의 어머니는 역대 재산에 정부를 거느린 여성, 더 나아가 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강한 존재로 형상화된다. 어머니 하인혜는 아들의 아이를 가진 백희에게 폭력을 청부하고, 이를 계기로 그녀를 자살에 이르게 하는 악녀의 형상을 하고 있다.

하인혜와 아들 민주의 단단하던 모자지간의 애정은 어머니에게 정부가 생기

---

39 정하연, 「환상살인」, 『경향신문』, 1969.01.08., 5쪽. 이후에는 쪽수만 표기

40 「정념적인 드라마」, 『경향신문』, 1969.3.5. 이후 이 작품의 흥행에 힘입어서인지, ‘환상’이란 키워드가 들어간 제목의 텍스트가 몇 편 창작된다. 김상민의 「환상의 초대」(1976), 송상옥, 「환상살인」(1978)이 있다. 이 역시 당대 정신의(분석)학의 도입과 연관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41 인혜는 애인이 생긴 자신을 비난하는 아들에게 “넌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얼마나 괴로웠다구. 우린 언제나 같이 지내지 않았니? 그런데 네가 불쑥 집을 나가 버렸어. 너만 내 곁에 있어줬어도 난 견딜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42 “어머니를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아들과 그 어머니에게 접근해 있는 성년의 남자 짐작하시겠습니까?”란 대사가 나온다.

43 김승옥, 「생명연습」(1962), 이청준, 「바닷가 사람들」(1966), 김주영의 「아들의 겨울」(1977), 나중에 귀환하는 아버지이지만, 주요 서사에서는 부재하던 오정희, 「유년의 뜰」(1980) 등을 그 예로 든다.(임금복, 앞의 글, 265쪽)

고, 아들인 민주에게 애인인 백희가 생기면서 균열이 일기 시작한다.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아들에게 백희는 그 굴레를 벗어나 새롭게 안착할 대상이었으나, 그 악행을 자신의 의지로 막아내지 못한다. 게다가 어머니에게 생긴 정부의 존재가 그 삼각 관계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그는 어머니에 대한 살해 충동을 느끼기에 이른다.

[민주] 난 엄마를 죽이겠어 왜냐하면 난 도망치구 싶어서. 엄마가 날 가뒀거든. 철장 속에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는 감옥. 그것 빛 깔이 없어 냄새만 나지. 구린내. 똥구린내. (코를 찔룩이며) 별름 별름 별름 (키득 거리며) 난 도망치겠어 멀리 아메리카로. 거기서 나는 돈을 마구 뿌리며 살겠어

그는 자신이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살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강렬해진, 어머니에 대한 분노로 전환시킨다. 민주는 하인혜가 자신을 “철창 속에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는 감옥”에 가두었다면서, 방탕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려 한다. 이 대사는 민주가 그만큼 어머니 때문에 괴로웠다는 점을 강조하여 그가 인혜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주변 인물들이 이러한 민주의 행적을 증언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가 범인이라는 확신이 들 즈음, 갑자기 중혁이 자신이 하인혜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극의 흐름이 전환된다.

[중혁] 하인혜는 역시 내 것만은 아니더란 말일세 (웃으며) 나쁜건 자네나 내가 아닐세 자네 어머니지. 저 여자지. (민주가 던진 권총을 천천히 집어든다)

(…)

[인혜] (나직이) 안 돼요. 모두 미쳤어요.

[중혁] (천천히 권총을 겨누며) 약고 약아 빠진 여자. 생전 처음으로 당신은 지금—누군가 갖기를 열망하는 자의—한 여자가 되는군.

(권총이 발사된다. 세 방의 총성이 아슴프레하게 들린다. 인혜 천천히



쓰러진다. 아연해서 서 있는 민주. 중혁의 미친 듯한 음산한 비웃음소리  
만이 무대가 어두워져도 오래도록

(…)

[민주] (나직히) 한가지—우린 서로 닮은 것이 있군요. (중혁 잠시 민주를 바라보다가 방청석에 가 앉는다)

아들이 범인이라는 증언들이 지속되면서 극적 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혁과 민주는 인혜가 행한 악행의 전모를 밝히면서 삼각 관계의 한 축인 하인혜를 공동의 적으로 전환시킨다. 이후 그동안 민주가 범인이라고 증언했던 중혁은 하인혜를 자신이 죽였다고 자백한다. 이 장면은 중혁이 민주와 고백을 듣고 점차 그와의 동질감을 느끼는 순간, 인혜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우발적으로 그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 극에서는 이 두 사람의 자백만 있을 뿐, 누가 하인혜를 죽였는가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설정은 그 사실보다 이 극은, 이들이 왜 인혜를 살해했는가 그 동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중혁의 대사에 의하면, 그가 인혜를 살해한 것은 가난한 자신을 두고 부유한 엘리트였던 민주와 아버지와 결혼했던 그녀에 대한 원망 때문이었다. 이렇게 중혁과 민주 두 남성은 인혜라는 악녀 때문에 상처입은 영혼으로 형상화되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 역시 중혁과 “서로 닮은 것이 있”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인혜에 대한 공통된 태도가 중혁과 민주 두 사람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다음 단계인, 아버지와 아들의 동성 연대의 세계로 안내하는 듯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간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민주가 자신이 인혜를 죽였다고 주장하며 또 한번 서사의 흐름이 바뀐다. 어머니를 자신이 살해했다고 고백한 민주와 주체적인 결단은 이 극의 종착역을 안온한 동성 연대의 세계로 귀결시키지 않는다. 민주는 “다른 사람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뺏길 수 없는 까닭”에 “내가 원하는 것(살인)을 스스로 행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자유란 그것을 열망하고 있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민주는 어머니 살해 행위의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비장하게 전유한다. 그러면서 극은 인혜의 애인인 중혁보다 아들인 민주와 고통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이로써 민주와 중혁, 즉 아버지와 연대

를 거부하고, 그와는 다른 길을 선택한 단독자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나 이 상황은 민주 스스로 패륜아가 되는 최악의 선택을 한 대가로 얻어진 결과로, 이 결론은 그만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극복하기 힘든 것이라는 점을 비장하게 강조하는 효과를 낸다.

정리하면, 이 극에서 어머니의 악마화는, 스스로 패륜아가 되는 아들의 무리수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악한 어머니상의 등장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시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다루는 담론의 특징이기도 하다. 당대 희곡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1970년대는 여성 주체 내부의 계급분화가 이루어진 시기로, “공순이”, “여대생”, “호스텔스(직업여성)”, “복부인”, “유한마담”, “극성엄마” 등의 새로운 여성인물군이 등장하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당대 희곡에 투사되었다고 분석한다. 그러면서 연구자는 이 텍스트들이 “새로운 여성의 현실에 무관심하거나 관념적인 인식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sup>44</sup>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환상살인」 역시 이러한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sup>45</sup>

이미 이 공연을 소개하는 글에서도 “대문명은 마마시대, 이른바 모계사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런 시대에 대한 하나의 반란에까지 비유될 수 있는 요소도 담고 있는 환상살인은 창작극계의 착실한 수확”<sup>46</sup>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를 볼 때에도, 이 희곡에서 등장하는 욕망의 주체이자 부를 갖춘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형상도 가부장제적 권력을 위협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아들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단계를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

44 김옥란, 「특집: 1970년대 희곡의 경향과 이데올로기; 1970년대 희곡과 여성 재현의 새로운 방식」, 『민족문학사연구』 제26호, 민족문학사학회, 2004, 64쪽.

45 70~80년대에 이르면 ‘중동건설 근로자’ 부인들의 춤바람 탈선을 그린 ‘춤바람’ 뉴스가 많았던 것도 당대 통치 주체들의 보수적인 중산층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연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자은, 「무엇이 중산층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가?」, 『문화과학』 제95호, 문화과학사, 2018, 380쪽. 특히 1970년대 말 부동산 투기를 통해 등장한 ‘복부인’의 형상은 여성의 경제 주체화를 반영한 혐오 표상이었다. 황병주, 「1970년대 ‘복부인’의 경제적 표상과 문화적 재현」, 『사학연구』 제140호, 한국사학회, 2020; 전봉관, 「주거의 투기화, 투기의 여성화—1970~1980년대 한국 서사에 나타난 복부인의 형상화 양상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5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9. 참조.

46 「情念的(정념적)인 드러머」, 『경향신문』, 1969.03.05. 5쪽.

감옥으로 유폐시키는 결론은, 역으로 어머니의 소거를 통해서도 그가 제대로 된 사회적 자아, 즉 초자아의 세계를 구축하기 힘들다는 점을 증명한다. 주인공이 선택한 범죄자의 길은, 자신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며 정상적인 아버지로의 길을 유보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애인과 아이를 지키지 못한 비겁함의 원인을 어머니에게 전가하려는 아들의 자기 연민의 서사라는 이 극의 결정적인 한계도 지우지 못한다.

### 3.2 부권 세계의 파멸과 소거된 여성들 —정현웅의 「외디푸스의 초상」의 경우

「외디푸스의 초상」은 『마루타』를 창작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추리소설가인 정현웅의 처녀작이다.<sup>47</sup> 이 텍스트는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친일파인 “남편이 농부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고 있을 때”, “소화의 항복 선언과 거의 동시에 세상에 태어난” 성훈과 그의 가족이 격동의 세월을 거치면서 겪는 성장 서사의 구도를 갖는다. 이 소설은 제목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만, 초반부터, “엄마, 나 커서 어른 되며 엄마하고 결혼할테야.,” “그럼 아빠가 질투할 거야.,” “아빠하고 결혼할지 몰라, 그러면 엄마 누구 편이야.”(36쪽)와 같은 대사를 통해 오이디푸스 삼각관계 서사임을 노골적으로 표방한다. 아버지가 부재한 채 출발한 이전과 달리, 이 서사는 삼각관계의 주체인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가 모두 생존한 채 시작한다. 대신 그 아버지가 권위적이거나 속물적인 존재로 부정적으로 형상화되며 일단은 일반적인 가족로망스 서사의 문법을 따르는 듯하다.

“자식들… 강력한 지도자는 모두 독재자로 보이는 모양이군.”

민범수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그는 정세의 변화에 적응이 빨

47 이 소설은 1976 중앙일보사(삼성문예재단)가 제정한 제6회 도의문화저작상(道義文化著作賞) 수상한 작품이다. 이후 78년에 지소림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여기서는 에피루스에서 2016년에 발간된 판본(e-book)을 대상으로 한다.(정현웅(천악마), 『외디푸스 초상』, 에피루스, 2016.)

라서 4·19 직전에는 시경국장이었다. 민주당 집권 때 상공부 장관을 지내다 계속적인 정책의 실패로 각료의 자리를 물러났었다. 5·16 군사혁명 이후, 정치적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구데타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1965년 여름, 민범수는 불란서 대사로 발탁되어 유럽으로 떠났다.

딸은 필화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데 바둑만 두고 있어, 하고 영수는 생각했다.(40쪽)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죽음에조차도 인색했던 수전노였으나, 그는 죽어야 했다. 그는 다시 눈을 뜰 수 없게 되었다. 몇 개의 은행에 막대한 주식을 투자했고, 수 개의 회사를 경영하던 재벌이었지만, 그의 최후는 초라할 뿐이었다.…“도둑놈 의사놈…”(87)…성훈은 사람들을 따라 같이 울 수 없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88쪽)

우선 식민지 시대에는 친일파였다가, 4·19혁명과 5·16군사 정변을 두루 거치면서도 권력의 요직에 앉아 있었던 성훈의 아버지 민범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형상이다. 또 다른 아버지 형상인 성훈의 사돈은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관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주인공의 숙모 선옥의 아버지로, 필화사건의 대상이었던 딸을 구명하기 위해 애쓰는 남편 영수를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또 목숨보다 돈을 더 중하게 여겼던 성훈의 할아버지, 그의 애인인 애숙을 정신병자로 취급해 가뉘버리는 폭력적인 남편인 목사까지, 이 서사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남성이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선옥의 남편 영수가 거의 유일하게 긍정적인 형상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내면은 반공주의적 자장 내부에서 구성된다. 한국 전쟁 당시, 기자였던 남편 영수는 제네바 협정이 깡그리 무시되는 상황에 분노하고, 자신의 희생을 불사하며 부하들을 구해내는 군인 간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휴머니즘적인 공감을 느끼는 존재이다. 이러한 형상은 탈식민 이후 아버지의 존재성은 반공주의적 자장 내부에서만 실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아내인 선옥이 억울하게 필화사건에 휘말릴 때에도 아내의 의지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구명 운

동을 한다.

아버지상이 이렇게 대체로 전형화되어 있는 데 비해, 어머니의 형상은 다소 입체적인 편이다.

“사진에서 본 엄마의 모습…어머니는 지금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재일교포가 되었지요. 그 여자가 어떻게 돼서 거길 갔는지 알 수는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

“저의 숙모는 소설가였습니다. 지금은 절필하고 글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필화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탄핵하려고 숙부가 다니다가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왜 숙모 이야기를 언급하느냐면, 나는 나의 어머니라는 여자를 생각할 때 그녀와는 대조적인 인생행로를 걸어온 숙모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간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으로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38쪽)

경찰서장의 아내인 내가 어째서 남조선 노동당 당원이 되었을까? 공산주의 운동가인 한민철의 영향 때문이었을까? 한민철에게서 얻어 읽은 칼 맑스의 저서 때문이었을까? 나는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노지연은 괴롭게 자문했다. (…)

공산주의 운동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버렸는가. 무엇을 버렸는가. (159쪽)

“여필종부를 모르십니까?”

“술가락에 묻은 밥풀 같은 이야기지.” (257쪽)

과부가 수절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 그녀는 결코 수절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싶을 뿐이다…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할 수는 없다. (206쪽)

첫 번째 인용구는 성훈이 어머니 노지연과 숙모 선옥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이다. 두 번째 인용구는 노동당 당원이 되어 전쟁에 참여한 노지연이 그 이념에 회의를

품는 장면을 보여주고, 세번째는 선옥이 남편 영수의 죽음 이후 낙향한 이후에 다룬 남성의 재혼 청혼을 거절하는 장면이다. 첫 번째 인용구대로, 이 서사에서는 두 어머니가 등장한다. 성훈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모성을 저버린 부정적인 형상인 생모 노지연과 이와 반대로 가족을 위해 자신을 삶을 희생한 존재, 숙모 선옥이 그들이다.

두 번째 인용구가 보여주는 대로, 여기서 어머니 노지연은 하인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삶을 선택한, 강한 여성이지만 그와 달리 자본화된 주체가 아니라, 정치적 주체이다. 한국전쟁 당시 “남조선 노동당에 가입하여 인민군 활동”을 하기 위해 집을 나간 어머니 노지연의 존재는, 아버지에 의해, 불륜에 눈이 멀어 자식까지 버리고 집을 나간 비정한 모정으로 표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노지연도 자신이 아들과 가족을 버렸다는 점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한다. 노지연은 위의 인용구에서처럼 스스로 사랑과 이념을 선택한 주체적 여성상이지만<sup>48</sup>, 이 서사에서는 ‘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이 이 모든 미덕을 무화시킨다. “칼 맑스의 저서”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념을 택했다고 묘사된 이 여성정치가의 형상은 여성의 욕망과 이념 모두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깔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어머니의 형상인 선옥은 필화 사건 이후 구명 운동을 하다 남편 영수가 죽자 그 죄책감에 모든 활동을 포기하고 낙향한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그녀는 생활에 휘둘리지 않고, “여필중부”와 같은 보수적 관념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 감정에 정직하게 스스로 사랑을 선택하는 주체성을 잃지 않는다. 더 나아가 성훈을 가장 잘 이해하면서 친어머니인 지연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성훈과 애숙의 사랑을 응원하는 열린 사고방식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선옥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직업인 작가를 포기한다. 성훈은 그런 선옥의 선택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 포기하는 태도에 긍

---

48 노지연은 성훈 대신 자신을 따르는 후배 여성 동지들을 살뜰하게 챙긴다. 그 와중에 중대장과의 불륜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후배 보라의 죽음에, 울분을 토하며 이를 당대 고발할 줄 아는 정의로운 행동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연의 행동은 자신을 이 길로 이끌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한민철이나, 보라와의 연애를 숨기려고 하고, 자신을 고발하려는 지연을 역으로 스파이로 몰았던 중대장 장재식과는 대조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이들 남성들은 모두 자신의 출세가 더 중요한 존재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성훈의 보수적 인식은 어머니에 대한 애증의 강도를 더하게 만든다.

어머니날 그는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았지.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았다. 왜 그랬을까. 그는 수치심 같은 것을 느꼈다. 그는 초등학교 일학년이 불과했지만 인격적으로 모욕받는 느낌이 었다. 어떤 결함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공개되어서는 안될 그 결함을 누가 지적했을때처럼 그는 당황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대부분의 아이들과는 이질적인 존재이고, 섞일 수 없는 존재인 것만 같았지. 그것이 바로 흰 카네이션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72쪽)

위의 인용구에서처럼 작가는 성훈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머니의 부재 때문이라는 점을 흰카네이션이라는 매개를 통해 정당화시킨다. 바람난 어머니를 둔 아이들은 결함이 있는 존재, 인격적인 모욕받을 만한 주체로 만드는 당대 상황도 이러한 점을 부추킨다. 이 부재하는 존재에 대한 애증은 성훈을 결핍이 가득한 존재, 사랑에 불구인 주체로 성장하게 한다.

“훈은 나를 경건하게 바라보고 있어. 그건 애정이 아니야. 유년시절에 상실한 어머니의 영상을 자신의 의식 속에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 모델이 내가 되었던 거야. 때문에 나에게서 여자를 못 느낄 거야.”  
(253쪽)

이처럼 애숙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녀를 안지 못한다. 어머니의 부재는 어머니에 대한 비정상적 애착으로 이어지고, 이는 향후 성훈의 여성상에 영향을 끼친다. 이는 이 서사의 말미에서 사촌 영민이 그에게 한 지적처럼, 그가 여성을 폭력적이고 불구적 시선, “창녀가 아니면 성녀로” 보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훈의 성장 서사 내부에 어찌면 그의 비극적 상황보다 더 불우한 많은 여성들의 희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희생자는 애숙이다. 그녀는 그와의 결혼을 거부하고, 다른 남성과 결혼해서 성훈에게 많



은 상처를 안기기도 하지만, 이를 악녀의 형상이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애숙의 형상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우선 그녀는 자기 토지를 갖기 직전에 건달들의 폭력에 희생된 소작농의 딸이자, 이후 기독교 신자에게 입양되는 존재이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탈식민 과정에서 제국이 미국으로 교체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메타포로 읽히기도 한다. 목사 부인(사모)라는 존재성은 그녀와 성훈의 만남을 더욱 금기의 영역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여러 위계화된 구도 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애숙의 존재 인식은 나중에 “권력과 금력에 대한 혐오”, “부유층에 대한 일종의 거부반응”(147쪽)을 만들어 그녀로 하여금 부르조아 가정에서 자라난 성훈과의 결혼을 거부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후 양부모의 뜻을 따라 사랑도 없는 목사와 결혼하게 한다. 그리고 사랑 없는 결혼과 애인 성훈의 비정상적 태도는 그녀로 하여금 인형 페티시즘에 빠지고, 히스테리적 주체가 되게 만든다.<sup>49</sup>

그러면 그의 어머니인 노지연은 어떠한가? 그녀 역시 남편과 애인, 동료들에게 배반당한다. 아들의 멸시는 당연히 견뎌야 할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의 눈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엄청난 희생을 선택한다. 이념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로 지연이 아끼던 후배 보라는 중대장인 애인의 배신에 자살에 이르고, 선옥의 경우에는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으나, 그가 이루고자 했던 작가의 길은 포기한다. 부재하는 어머니의 대용체였던 애숙은 도착증세에 정신병원에 갇히며 세계에서 유폐된다. 이 극의 서사는 성훈이, 애숙과의 불륜의 대가로 잃은 눈을 어머니의 기증으로 다시 얻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그것으로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증이 소멸되면서, 성훈의 오이디푸스 단계는 끝난다.

---

49 이 증상은 남성들의 폭력에 대한 본능적인 자기 방어이자 표출되지 못한 욕망이 투사된 신체적 징후였다고 볼 수 있다. 여성성에 가해지는 지배적인 심리적·사회적 억압에, 애숙은 그들의 반항적인 소망과 욕망을 오직 육체적 형태로 무의식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었다. 도착 증상의 대상은 예전에 성훈과 애숙이 파리에서 만났을 때, 그녀의 방에서 발견했던 그녀의 애착인형이었다. 이를 보았을 때에도 애숙은 어떤 남성들에게서도 안온한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알려 준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현웅, 앞의 책, 208, 300쪽 참조. 여성의 성도착증에 대해서는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성도착의 예술」, 『근대성과 페미니즘—페미니즘으로 다시 읽는 근대』, 거름, 1998, 284-285쪽.

그러면 성훈은 정상적으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단계를 넘어 정상적인 아버지의 세계, 즉 초자아의 세계로 들어선 것일까? 또한 그곳은, 성훈이 그토록 혐오했던 아버지들의 세계, 권력과 자본의 세계와는 다른 곳이었을까? 이 서사에서 성훈이 눈을 열고 가야 할 세계는 이 모두의 길이 아닌, 어정쩡한 그 어디쯤으로 막연하게 열려 있다. 1970년대 말 이 가족로망스는, 제대로 된 아버지의 세계, 초자아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는다. 물론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라면, 초자아의 세계는 부르조아 사회의 보수적 부권 중심의 세계일 것이지만, 이 텍스트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정상적인 아버지의 세계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폐허가 된 이 땅위에 거대한 자금과 노력을 투자하여 재건하고 있습니다. 각하의 영도 아래 말씀입니다. 또한 각하께서는 한 개의 철근과 한 삼의 콘크리트와 같은 물질만이 이 땅의 폐허를 재건하는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험벗고 굶주린 우리 민족의 정신문명을 책임진 문화예술인들에게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용기와 아름다운 전통과 자유를... 여기서부터 글씨는 피에 파문혀 보이지 않았다. (36-37쪽)

이 인용된 본문은 그나마 긍정적인 아버지의 형상이었던 영수의 죽음을 형상화한 부분이다. 이 장면에서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한 개의 철근과 한 삼의 콘크리트와 같은 물질만이 이 땅의 폐허를 재건하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당대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험벗고 굶주린 우리 민족의 정신문명을 책임진 문화예술인들에게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용기와 아름다운 전통과 자유”가 가능한 세계에 대한 열망이다. 그러나 그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적어 선육을 구명하기 위해 마련한 탄원서의 글씨가 피에 파문혀 보이지 않게 되는 장면에는, 그가 행한 행동의 위대성을 비장하게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그 글씨가 지향하는 세계의 건설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는 작가의 분노와 절망이 투사되어 있다. 여러 여성들의 희생으로 주인공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단계를 넘어 초자아의 세계로 나아갈 기회를 얻지만 그가 신뢰했던 유일한 아버지상인 영수의 죽음은 그것의

불안함, 혹은 불가능함을 암시한다.

그래도 그나마 이 두 서사가 갖는 의의가 있다면, 이 가족로망스의 결론이 적어도 남성들만의 권력의 연대, 형제애의 서사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민주와 성훈은 마지막에는 단독자였다. 또한 「외디푸스의 초상」에서는 모든 여성을 “창녀 아니면 성녀”로 바라보는 시선도 비판하고 있다. 육체적 결합을 희구하는 애숙의 애원을 거부하고 그의 뺨을 후려치며 난 후 성훈은 “경솔했다고 느끼는 것은 애숙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생각”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 그러나 이는 성훈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단계를 벗어나기 위한 포석으로 자기 정당화를 위한 미약한, 그리고 이미 늦어버린 후회였다. 그의 잘못을 수정할 기회는 애숙이 정신병원으로 유폐되면서 기약없이 유예된다.

그런데 작가가 소거해버린 여성들, 즉 지연의 진실된 이념과 사랑, 선옥의 검열에도 굴하지 않는 문학, 그리고 애숙이 추구하는 자신만의 예술과 사랑하는 대상과의 진실된 결합을 추구하는 에로스의 세계를 조합하다 보면, 그것이 역으로 새로운 초자아의 세계를 구상하게 한다. 작가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이것이 본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시 전해주는 오이디푸스 서사를 넘어서는 길이 아닐까 한다.

#### 4 오이디푸스 서사를 넘어서

케이트 밀렛이 『성의 정치학』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가부장제적이고 남근중심주의적 이론으로 분석한<sup>50</sup> 것처럼, 모든 오이디푸스 서사가 남성 서사라는 점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해방 이후 우리 역사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가족로망스가 존재하고 그것들이 대개 남성들이 초자아로의 진입이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식민지와 전쟁, 그리고 독재 체제를 거치면서 그 역사적 파고 속에서 아버지가 부재하거나, 정치적 아버지상이 부정해야 할 정도로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오이디푸스 서사는 어머니를 소거시키는 방법을 선택한다.

---

50 케이트 밀렛, 앞의 책, 352-398쪽.

그런데 1960~70년대 오이디푸스 서사에서는 그 어머니의 존재가 부각된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이는 당대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여성주의적 목소리가 등장하면서 가부장제적 체계에 균열이 일기 시작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 모계사회라던가, 아버지의 죽음 등을 논하던 당대 분위기는 자본주의 경제의 비정상성을 토대로 복부인을, 경쟁 위주의 억압적인 교육 체제가 치맛바람이란 용어로 모성을 혐오하기 시작한다. 특히 욕망의 주체인 모성은 가장 강력한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당대 사회는 오이디푸스 서사를 통해,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이라는 터부를 불러내면서, 이 혐오 서사를 구성해 가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오이디푸스 서사가 보여주는 치명적 약점은, 그저 아들이 어머니를 원망하고 혐오하는 퇴행적 상황 이외에는, 남성 성장 서사가 좌절된 역사적이고 사회구조적인 모순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이 두 가족 로망스의 결론이 적어도 남성들만의 권력의 연대, 형제애의 서사는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재현은, 당대 한국사회에서 제대로된 초자아로의 진입이 불투명했던 당대 남성들의 자기 위안의 서사로 구성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더불어 이는 보편 서사로서 프로이트의 남근 중심 동성 연대 가족로망스의 허구성(번역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남성 서사를 비판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여성의 서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정희의 소설 「유년의 딸」에서는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머니의 경제 활동을 부정한 행위로 끊임없이 몰아가는 오빠가 나온다. 그 오빠가 갖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고착은, 부재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집착만 할 뿐, 정작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어머니였고, 주체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도 못하는 무능함과 함께, 그의 폭력적인 성향은 아버지 세대를 닮아 있다. 결국 아들이 경제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신이 가부장제적 주도권을 모녀에게 빼앗기는 것이었으며, 이를 사수하기 위한 방식은, 기껏 어머니의 경제 활동을 성적으로 불결한 탈선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화자인 누이는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갖춘 남성의 서사가 올바른 초자아의 세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무능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명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서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버지의

귀환은 이후 어머니의 희생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두 딸을 두고, 또 다시 아버지와 오빠의 형제애의 서사가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프로이트가 말한 초자아의 서사라면, 그것이 적어도 무능력하고 폭력적인 남성 서사가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화자는 날카롭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1980년 창작된 박완서의 소설 「엄마의 말뚝」에서도 아버지와 오빠가 사라진 자리에 모녀가 살아야 하는 상황, 그 안에서 아들에 대한 회환을 간직한 엄마의 애정을 거리를 두고 연민과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여성 화자가 등장한다. 이 두 텍스트는 이제 남근 중심 오이디푸스 서사의 전성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아버지와 오빠가 부재해도 고통스럽지만, 가능한 어머니와 딸이 연대한 세계를 열면서.

## 참고문헌

### 기본 자료

- 김승옥의 「생명연습」, 『김승옥 소설전집 2』, 문학동네, 1995, 19-45쪽.
- 오정희의 「유년의 뜰」, 『유년의 뜰』, 문학과지성사, 1980, 9-65쪽.
- 유석진 편, 『精神分析學: 후로이드誕生 101周年記念 論文集』,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58, 3-78쪽.
- 이동식, 『노이로제의 이해와 치료』, 서울: 일지사, 1974.
- 이종규, 『노이로제』, 서울: 개척사, 1973.
- 이청준, 「바닷가 사람들」, 『병신과 머저리』, 문학과지성사, 2010, 125-141쪽.
- 정하연, 「환상살인」, 『경향신문』, 1969.01.08, 5쪽.
- 정현웅(천악마), 『외디푸스 초상』, 예피루스, 2016.
- 차준구, 「한국 전설에 나타난 효의 문화정신의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18-1(별책), 1979, 82-90쪽.
- 프로이트, 김정일 역, 『성욕에 관한 세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1997, 225-382쪽.
- \_\_\_\_\_, 김인순 역, 『꿈의 해석(상)』, 열린책들, 1997, 340-361쪽.
- \_\_\_\_\_, 이윤기 역, 「토텐과 타부」,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1980, 401-

430쪽.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

### 단행본

나병철,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반오이디푸스 문화론』, 문예, 2007.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의학 100년사』, 서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9, 76-123쪽.

로버트 M 영, 이정은 역,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제이북스, 2002, 7-8쪽, 21-22쪽.

리타 펠스키, 김영찬·심진경 역, 「성도착의 예술」, 『근대성과 페미니즘—페미니즘으로 다시 읽는 근대』, 거름, 1998, 284-285쪽.

린 헌트, 조한욱 역,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새물결, 1999.

미셸 푸코, 심세광, 전해리 역, 『정신의학의 권력: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3~74년』, 난장출판, 2014, 127-136쪽.

에드워드 쇼터, 최보문 역, 『정신의학의 역사』, 바다출판사, 2014, 4쪽.

케이트 밀렛, 김전유경 역, 『성 정치학』, 이후, 2009, 353-355쪽.

### 논문

공종구, 「삼부녀에 나타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가족주의」, 『현대소설연구』 제5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9-34쪽.

김미영,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가족 로망스의 의미」, 『語文學』 제97호, 한국어문학회, 2007, 209-234쪽.

김소연, 「1960년대 만주활극 영화에서 가족 로망스와 (탈)경계 욕망의 문제설정」,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제18권 2호, 한국라깡과현대정신분석학회, 2016, 9-38쪽.

김옥란, 「특집: 1970년대 희곡의 경향과 이데올로기; 1970년대 희곡과 여성 재현의 새로운 방식」, 『민족문화사연구』 제26호, 민족문화사학회, 2004, 63-84쪽.

오자은, 「무엇이 중산층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가?: 70~80년대 중산

- 층 여성 소설들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제95호, 문화과학사, 2018, 378-406쪽.
- \_\_\_\_\_, 「‘살’과 ‘이념’: 중산층 남성 성장서사의 무의식: 김원일의 『노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59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9, 217-260쪽.
- 이부영, 「韓國에서의 西洋精神醫學 100年(1899-1999)」, 『醫史學』 제8권 2호, 대한 의사학회, 1999, 157-172쪽.
- 이정민, 「한국의 프로이트 이론 수용 양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6, 78쪽, 123쪽.
- 임금복, 「한국적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초상」, 『비평문학』 제7호, 한국비평문학 회, 1993, 263-281쪽.
- 임지연, 「1960-70년대 한국 정신의학 담론 연구: 정신위생학에서 현대 정신의학 으로」, 『의사학』 제26권 2호, 대한의사학회, 2017, 181-214쪽.
- 전봉관, 「주거의 투기화, 투기의 여성화—1970~1980년대 한국 서사에 나타난 북부인의 형상화 양상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5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9, 321-359쪽.
- 정승화, 「근대 남성 주체와 동성사회적(homosocial) 욕망: 프로이트의 오이디푸 스 서사와 멜랑콜리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2.
- \_\_\_\_\_, 「자살과 통치성: 한국사회 자살 담론의 계보학적 분석」, 연세대 박사학 위논문, 2012.
- 최애순, 「1960년대 정신분석의 도입과 근대적 공포 코드의 전환—이청준 소설의 ‘정신병자’와 정신분석 치료의 충돌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7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273-311쪽.
- 한래희, 「김현 비평과 정신분석 방법론」, 『현대문학의 연구』 제66호, 한국문학연 구학회, 2018, 357-392쪽.
- 허관무·고재석, 「탈식민, 전쟁, 오이디푸스 대한민국—최인호 초기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국어문화회, 『국어문학』 제72호, 2019, 395-419쪽.
- 홍창수, 「1970년대 번역희곡과 번역극의 수용 양상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 20호, 한국극예술학회, 2004, 63-98쪽.



황병주, 「1970년대 ‘복부인’의 경제적 표상과 문화적 재현」, 『사학연구』 제 140호, 한국사학회, 2020, 505-539쪽.

## Abstract

Frustrated homosocial solidarity and elimination of maternity: Korean men’s ‘Oedipus Complex’ overcoming (improbable) possibility after post-colonial (1960s-1970s)

Park Jiyoung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gender politics in the major aspects of Freud’s translation of the ‘Oedipus Complex’, which was intensively created in Korean literature from the 1960s to the 1970s. This is based on the perception of “maternal hatred” created by fear of the decline of patriarchal paternity and the rise of motherhood. In particular, the emergence of women who were honest with their desires and who were political and economically active agents during this period was a powerful phenomenon that shakes patriarchal society. This point is clearly evident in contemporary texts that chose the Oedipus narrative structure. Looking at Jung Ha-yeon’s “Fantasy Murder”, who borrows a typical Oedipus narrative, and Jeong Hyun-woong’s “Portrait of Oedipus”, in the male-centered family romance narrative, the son, the subject, enters the world of paternity damaged by the violent claustrophobia of the time. In order not to be able to do it or to reject it, he kills or destroys the mother instead of the father. Of course, the son, the protagonist of these two texts, does not advance into the world of same-sex solidarity with his father, at least as in other Oedipus narratives, but remains solely alone. But still their future is confined or vague. This is because their narrative is a violent narrative of self-comfort to compensate for the deterioration of masculinity, and the masculinity that has been damaged in the historical digging after post-colonial is no longer a proper father (superego) through erasing the mother (female). It tells you that you cannot enter the world of the world. In doing so, it shows the fiction of Freud’s penis-centered same-sex family romance. However,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a woman’s narrative who views this male narrative with a critical sense of distance appears at this point in time. The novels by Oh Jung-hee and Park Wan-seo show that beyond this family romance, a world in which new mothers and daughters can join together is possible.

Key words: Freud, Oedipus Complex, Oedipus Narrative, 1960s, 1970s, “The illusion of murder”, “The Portrait of Oedipus” Gender Politics, Family Romance, Superego, Homosocial Desire, Maternal hate(misogyny).

본 논문은 2021년 3월 26일에 접수되어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4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